

2020년도 북방사 신진학자

학술 워크숍 자료집

- 일시: 2020년 12월 8일, 14시~18시
- 장소: 동북아역사재단 11층 중회의실



일정표

구분	시간	내용
개회사	14:00-14:10	환영사(김현숙 연구정책실장)
1부 발표	14:10-15:30	사회: 박장배(북방사연구소장)
		<대청제국의 정치사회와 국가통합> 임경준(東京大) <청말 장강의 해관체제 형성: 천진조약에서 지부조약 까지(1858-1876)> 김현정(東京大) <청말 신정기(1907-1911) 길림성의 기제 개혁 연구> 이지영(서울대)
휴식	15:30-15:40	휴식
2부 발표	15:40-17:00	사회: 장석호(북방사연구소 연구위원)
		<티무르朝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Zafar-nāma)의 譯註> 이주연(서울대) <The Myth of the Butcher Amir: Tribal Politics and Early Modernization in Nineteenth Century Central Asia> 이광태(Indiana University)
종합토론	17:00-18:00	김인희, 배성준, 배현준, 이유표, 홍성민 등 북방사연구소 연구위원

목차

학위논문 제목	발표자 (학위수여대학)	쪽
大清帝國의 政治社會와 國家統合	임경준 (東京大)	1
清末長江における海関体制の形成 ：天津条約から芝罘条約まで (1858－1876)	김현정 (東京大)	7
清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이지영 (서울대)	12
티무르朝 史書, 야즈디 撰 『勝戰記』(Zafar-nāma)의 譯註	이주연 (서울대)	19
The Myth of the Butcher Amir: Tribal Politics and Early Modernization in Nineteenth Century Central Asia	이광태 (Indiana University)	27

大清帝國의 政治社會와 國家統合

임경준(동경대)

- 취득기관 : 도쿄대학 종합문화연구과
- 지도교수 : 스기야마 기요히코(杉山清彦)
- 취득시기 : 2020년 10월

본 논문은 八旗를 國制로 하여 성립된 滿洲人(Manju)의 국가 大清帝國(Daicing gurun)의 '정치사회'는 국가 형성과 통치 형태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궁극적으로 어떻게 하여 하나의 국가로서 통합을 이룩하고 있었는지 하는 문제에 착목함으로써 滿洲 왕조로서 大清帝國이 갖는 특질을 밝히고자 시도하였다. 이를 위하여 개별 사건의 연대기적 서술을 지양하는 대신에 大清帝國의 국가적 통합을 떠받치던 滿洲人 고유의 대표적인 관습과 제도를 추출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와 동시에 이러한 관습과 제도 기저에 자리 잡고 있던 滿洲人의 세계관과 행동규범에 주목함으로써 해서 중국·일본학계의 정치사·제도사 연구나 구미학계의 新淸史 연구가 노정하던 한계와 취약을 극복하고자 하였다.

논문의 내용은 「서론」과 「결론」 그리고 본론에 해당하는 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각장은 독립된 주제를 다루고 있기는 하나, '정치사회'와 '국가통합'이라는 논문의 두 주제어를 의식하면서 짜여져 있다. 말미에는 사료와 참고문헌 목록이 덧붙여져 있다.

「서론」에서는 16세기말 만추리아(Mancuria) 지역에서 발흥하여 유라시아 동방의 대제국으로 발전하게 되는 18세기까지의 시기를 중심으로 大清帝國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간략하게 정리하였다. 나아가 이러한 통사적 이해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해온 종래의 연구가 皇帝와 旗王(유력한 宗室) 그리고 旗

人(八旗의 구성원) 사이의 권력투쟁이라는 전제 위에 축조되어 왔다는 점을 부각하였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전제 때문에 大清이란 국가를 구성하는 여러 권력단위가 어떻게 하여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궁극적으로 국가적 통합을 달성하고 있었는가 하는 점에 관해서는 그다지 중시되지 않았던 점을 연구사적 한계로서 지적하였다.

잘 알려져 있다시피 大清帝國의 정권 구조는 上三旗(鑲黃旗·正黃旗·正白旗)를 직할 통치하는 皇帝와 下五旗(正紅旗·鑲白旗·鑲紅旗·正藍旗·鑲藍旗)에 분봉된 旗王, 그리고 八旗 각기에 분속되어 있는 旗人 가계가 국가의 최상부 지배집단을 구성하는 중층적·다핵적 권력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이와 같은 大清帝國의 국가구조가 갖는 특징에 비추어 본다면, 던져져야 하는 문제는 “어떻게 투쟁하고 대립하는가”라는데 있기 보다는 오히려 “투쟁과 대립을 되풀이하면서도 어떻게 하여 통합되었는가”라는 점에 있지 않은가.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미처 조명하지 못한 측면, 다시 말하여 大清帝國의 국가적 통합을 뒷받침하는 여러 계기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① 八旗制 국가의 정치사회에서 조정·중개적 역할을 수행하는 제도·집단의 실상을 검토하는 동시에 ② 국가 규모의 확대에 따라 중핵에 위치하는 八旗 바깥에 존재하게 된 권력단위가 大清 국가 속에 어떻게 통합되어 있었는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재검토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서론」에서 제시한 이와 같은 문제의식에 입각하여 **제1장 「議政大臣을 통해서 본 清初 政治의 특징」**에서는 大清帝國의 정치 기구로서 잘 알려져 있는 議政王·大臣會議의 구성원인 ‘議政大臣’을 전론하였다. 議政大臣에 관해서는 清代의 제도사를 다루는 여러 연구에서 이미 적지 않은 성과와 업적이 축적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는 議政大臣의 제도적 외관을 언급하는데 집중해왔던 기존 연구의 접근법과는 거리를 두는 대신에 滿洲人이 어떠한 정치형태를 바람직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그러한 정치관이 현실정치에는 어떠한 형태로 구현되고 있었는가 하는 새로운 관점에서 이 문제에 관한 재검토를 시도하였다.

먼저 大清의 창업주인 太祖 누르하치(Nurhaci)는 君主·旗王·大臣을 비

롯하여 정무 처리에 참여하는 전 구성원 사이의 論議(hebe)에 의한 政治(doro)를 바람직한 정치방식이라 인식하고 있었던 점, 그리고 누르하치의 후계자인 홍타이지(Hong taiji) 역시 이러한 정치관을 충실하게 계승하고 있었다는 점을 만주어 사료를 통하여 논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1637년에 설치된 ‘議政大臣’이란 특정한 관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八旗의 지휘관인 八大臣(gūsai ejen) 뿐만 아니라 議政에 참여할 수 있는 대신을 포괄적으로 가리키는 관명인 것을 밝혀냈다.

議政大臣의 구성인원은 護軍統領을 비롯한 八旗官 계열의 高官과 유력한 旗人家系 출신자가 다수 포진하고 있었으며 皇帝나 旗王의 腹心에 해당하는 旗人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議政大臣에게 요구되던 가장 중요한 역할이 각자가 소속된 旗의 旗王의 행동거지가 皇帝의 의향에 벗어나지 않도록 적절하게 간언하는 데 있었음을 議政大臣의 처벌 죄목을 분석함으로써 논증하였다. 이러한 차원에서 議政大臣이란 皇帝와 旗王이라는 복수의 권력단위로 편성된 淸初의 정치 환경에서 양자의 의사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일종의 ‘조정자’적인 존재였다고 결론지었다.

제2장 「淸初政治에서 啓心郎의 역할」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거의 정설로 여겨져 왔던 견해, 즉 啓心郎을 旗王에 대한 皇帝의 耳目官으로 간주하는 데에 이의를 제기하였다. 이와 달리 본 연구에서는 啓心郎의 滿洲語 ‘mujilen bahabukū’의 어원에 해당하는 ‘mujilen bahabumbi’(깨닫게 하다는 뜻)라는 어휘에 착안함으로써 이제까지와는 다른 관점에서 啓心郎의 정치적 역할에 관하여 파고들었다. 만주어 사료에 따르면 ‘mujilen bahabumbi’라는 어휘는 이미 누르하치 시기부터 빈번하게 등장할 정도로 滿洲人의 관습이자 풍속 중 하나였다. 무엇보다도 그 용례는 위법 행위를 적발한다는 법률적 의미라기보다 주로 상대방의 자발적인 개선을 촉구하는 도덕적 의미를 갖는 행위를 가리키는데 쓰이고 있었다.

홍타이지는 이러한 滿洲人 고유의 관습·풍속을 제도화하였다. 그리하여 旗王에 대한 조언자 역할을 기대하며 원래 문서행정에 종사하던 비트허시(bithesi/書記官의 의미)를 선발하여 啓心郎에 임명하였던 것을 밝혔다. 뿐만 아니라 실제 啓心郎은 皇帝와 旗王의 사이를 왕래하며 양자를 중재·조

정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던 것을 만주어와 한문 사료를 다각적으로 구사하여 논증하였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견해를 근년의 八旗制 국가론의 여러 성과들과 비교검토함으로써 啓心郎과 같은 제도적 장치야말로 大清을 하나의 일체성을 가진 국가로서 기능하게 하는 메커니즘이었다는 새로운 이해를 제시하였다.

제3장 「清朝 宮廷에서 內務府旗人の 존재양태」에서는 大清帝國 제5대 皇帝인 雍正帝의 치세에 궁정의 실력자로서 군림했던 창밍(Cangming/常明)이란 內務府旗人에 주목하였다. 창밍의 선조는 丁卯胡亂 때에 포로가 되어 大清으로 넘어오게 된 조선인 신다리(Sindari/新達理)라는 인물로 귀순 후에는 皇帝 직속의 家政機關인 內務府에 배속되어 중견 간부로서 경력을 쌓아간다. 이처럼 조선이라는 출신 배경을 갖는 신다리의 손자 창밍은 康熙 연간까지만 해도 중하위 旗人에 지나지 않았으나, 雍正帝의 즉위와 함께 특진을 거듭하여 단번에 궁정의 최고실력자로 부상하게 된다. 창밍의 이러한 榮華는 雍正 연간만이 아니라 乾隆 초년까지도 이어진다.

본 연구에서는 새롭게 발굴한 만주어 檔案과 조선측 견문기록을 대조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창밍의 출세 과정을 복원하였다. 먼저 雍正帝가 이렇게 창밍을 파격적으로 발탁하여 총애한 배경에는 그가 皇子 시절의 雍正帝에게 侍童으로서 복무한 점이 결정적으로 작용했음을 지적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창밍이 실제로 담당하고 있던 업무내용을 망라하여 살펴보면서 다른 內務府旗人の 사례와 연관지어 검토하였다. 그 결과 창밍을 비롯한 內務府旗人은 평시는 물론 皇帝가 궁정 밖으로 출타할 때에도 이를 近侍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동시에 필요에 따라 內廷과 外朝를 넘나들며 각종 용무를 처리하는 측근으로 활약함으로써 국가 전체를 하나로 묶어주는 존재였음을 다른 內務府旗人の 사례와도 연관지어 논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창밍의 사례를 중심으로 새롭게 제시한 內務府旗人の 위상은 그간 內務府旗人을 단순한 노복이나 하인 정도로 치부해오던 기존 연구의 관점과는 대단히 상이한 것이다. 일찍이 雍正帝는 內務府에 대한 기대를 ‘宮府一體’라는 표어로 제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 상징되는 것처럼 內務府旗人은 大清國家의 宮中[內廷]과 府中[外朝]를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연결고리로서 기능하고 있었다고 결론지었다.

제4장 「大清國家와 定南王家」에서는 明末清初 시기 遼東 일대에서 군벌 세력으로서 이름을 떨쳤던 孔有德과 그 군단에 주목하여 大清國家에서의 그 존재양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孔有德 군단은 明末의 毛文龍 세력에 연원을 갖는 遼人을 전력화·조직화하여 결정된 것으로 그 군사적 규모는 전투원만으로도 八旗 중에서 2, 3 旗에 버금갈 정도의 대군단이었음을 청측 檔案을 비롯한 만주어·한문 사료를 종합적으로 이용하여 밝혀냈다.

한편 大清으로 귀순한 뒤의 孔有德 군단은 八旗의 官制에 따라 조직 개편을 맞이하여 최종적으로 ‘定南藩’이란 명칭의 군사사령부로서 廣西 일대에 주둔하게 되는데, 군단의 내부 구성은 귀순 이전과 마찬가지로 고참 무장과 그 가계의 성원들이 계속해서 중추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뿐만 아니라 王爵을 받아 定南王으로 불리게 된 孔有德 일가는 大清 황실과 통혼관계를 맺음으로써 大清 국가에서 定南藩의 지위를 굳혀가고 있었다. 孔有德 자신은 南明 세력의 역습을 받아 전사하지만, 大清 국가는 藩王 부재라는 틈을 노리고 定南藩의 해체를 기도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괴멸 상태에 빠져있던 定南藩을 재건하고 藩王의 직위 역시 여식인 孔四貞에게 계승하게 함으로써 이전과 마찬가지로 大清의 藩屏으로서 기능하게 하였던 점을 밝혔다.

그러나 三藩의 亂이 일어남에 따라 定南藩은 여기에 동조하였다는 죄가 물어져 군단은 해체되어 八旗漢軍에 편입됨으로써 마침내 종언을 맞이하게 된다. 三藩의 亂과 그 결과로서 藩王 세력의 해체는 종래 康熙帝가 황제 권력을 정점으로 하는 일원적 지배체제의 확립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되어 왔다. 이에 따라 藩王 세력은 황제 권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그 반란과 해체는 역사의 필연적 결과로 간주되어 왔다. 그러나 定南藩의 사례를 통해서 본다면, 藩王 세력의 해체는 반란이라는 지배체제로부터의 일탈행위에 대한 조치로서 단행된 것으로 그 권력의 존재양태는 어디까지나 大清 국가의 일부분으로 자리하고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藩王 세력에 대하여 이와 같은 새로운 이해를 바탕으로 이를 八旗와 나란히 大清 국가를 구성하는 하위 왕권의 일부로서 위치지었다.

최종적으로 「**결론**」에서는 이제까지의 분석과 고찰을 통해서 얻은 성과를 정리하는 동시에 大清帝國史 연구에서 이러한 연구결과가 갖는 의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특히 ‘淸初 정치의 기본구조’와 ‘하위 왕권의 존재 양태’라는 두 차원에서 검토하였다. 먼저 淸初 정치는 기본적으로 皇帝와 旗王 양자를 유기적으로 연결해 주는 議政大臣과 啓心郎, 그리고 內務府旗人과 같은 제도적 장치에 의해서 지탱되고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이러한 정치형태의 특징을 ‘調停에 의한 정치’로 정의하였다. 이어서 定南藩의 사례를 통하여 大清 국가와 하위 왕권과의 관계에 관하여 언급하였다. 즉 定南藩을 비롯한 藩王 세력은 大清 국가에 편입되는 과정에서 기존의 지배관계를 거의 그대로 유지하였으며, 그 지배권을 황제에게 승인받음으로써 휘하 군단을 안정적으로 통치할 수 있었다. 반대로 大清 국가측에서 본다면 藩王과 그 군단을 포섭함으로써 漢地 지배의 첨병으로 활용하였다. 이러한 특징으로부터 大清과 藩王의 관계는 상호 대립하는 관계라기보다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지지하고 지탱해주는 구도 위에서 이해해야 할 것을 지적하였다. 이는 漢人 藩王 뿐만 아니라 몽골 왕공의 사례와도 짝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본 연구에 의해서 명확하게 부각된 大清帝國의 국가적 통합을 뒷받침하는 여러 메커니즘에 대하여 향후 보다 실증적이고 다각적인 분석과 고찰을 거듭해 나감으로써 大清帝國史 연구의 새로운 지평이 개척되리라 생각된다.

清末長江における海關体制の形成

: 天津条約から芝罘条約まで (1858—1876)

김현정(동경대)

19세기 후반 장강의 통상항은 연해의 통상항과는 달리 “對外”·“對內” 무역이 보다 한층 복잡하게 얽혀, 條約關稅와 內地關稅가 혼재하는 투 시스템(Two Systems) 속에서 “洋(foreign)”과 “華(native)”를 어떻게 구별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점차 대두되었다. 內港의 海關制度의 형성과 운용은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해 가는 과정이었다. 본 연구는 천진조약 이후 장강의 개방과 洋商 및 洋船의 본격적인 등장으로 인해 나타난, 기존체제로는 대응할 수 없었던 새로운 국면에서 장강의 해관체제가 어떻게 형성·운용되었는가를 규명하였다.

제1장에서는 1860년대 초 長江章程이 작성·개정되는 경위, 그리고 江漢關의 설치과정을 분석하여 初期內港體制의 성립과 그 성격을 고찰하였다. 1863년 長江統共章程이 실시되기 전, 장강교역에 참여하는 양상 및 양선이 내야 할 관세는 九江과 漢口에서 징수할 수 없었다. 청조 중앙은 장강교역에 대한 관세 징수를 오로지 上海에 집중시켜, 太平天國의 영향에 따른 징수 곤란에 대비해 장강에서의 稅收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는 장강의 지방당국으로부터 반발을 야기해, 한구를 관할하는 湖廣總督 官文은 거듭된 上奏를 통해 장강장정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구강과 한구의 관세를 상해에서 대리 징수하도록 한 장강장정의 규정 때문에 개항에 따른 新稅의 증가와 같은 기대는 무산되고, 한구에 출입하는 화물에 대한 감독권도 제한되어 양상과 거래하는 華商에 대한 이금 징수에도 지장이 생겼다. 태평천국 진압을 위한 군비조달에 고심하던 관문은 한구에 海關을 세워 관세 징수와 화물 검사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청조 중앙은 지방당국의 요구를 받아들여, 한구와 구강에서 해관을 정식으로 설치하도록 하였고 이로써 내항의 해관은 연해의 통상항의 해관과 동일하게 기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장강 개방이래 내항의 지방당국은 “양”과 “화”를 어떻게 구별해서 징세할 것인가, 혹은 구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와 같은 문제에 직면했다. 청말의 투 시스템 속에서 양상 및 양선은 內地交易에 참여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본래 내지교역에 적용되는 내지관세가 아닌 조약관세가 적용되었다. 이에 더하여 양상과 결탁해서 내지관세의 적용을 면하고자 하는 화상의 출현은 지방당국이 조약관세, 혹은 내지관세를 각각 어떤 경우에 적용해야 하는지 판단하는 것을 더욱 어렵게 하였다. 제2장에서 다룬, 한구의 獨占茶行에 의한 釐金 징수와 兩江總督의 茶葉落地稅 징수는 그러한 구체적인 사례이다. “양”과 “화”를 어떻게 구별해서 징세하고 부정과 탈세를 방지할 것인가. 이는 장강 개방에 의해 양상 및 양선의 내항으로의 접근이 허용된 1858년 천진조약이래 내항에서의 해관체제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였다.

제3장에서는, 1860년대 초 장강의 洋商民船에 대한 규정이 마련되는 과정을 검토하였다. 우선 장강의 양상민선이 “洋船”으로 인정되어 이금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외국깃발과 증명서가 필수 조건이었다. 영국의 양상민선에 대한 영국 국기와 증명서의 발급은 영국측으로서는 영국상인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또한 지방당국으로서는 “奸商”의 탈세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청조 중양은 內地船照의 발급을 통해 양상민선을 관리하고자 하였으나, 한구당국은 그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방식으로 양상민선에 징세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시도는 영국영사의 반대로 인해 좌절되고 결국 양상민선에 대한 과세와 관할은 장강통공장정이 실시되는 1863년에 이르러 공식적으로 행해지게 되었다. 한편, 양상민선에는 해관에 관세를 낼 것인지 아니면 常關에 관세를 낼 것인지를 선택권이 사실상 부여되었다. 그리하여 조약이나 장정에는 명기되어 있지 않지만, 내지법 혹은 지방의 암묵적 룰에 따라 양상민선을 다루던 당시의 상황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화물에 대한 관세는 해관에 납부하면서도 선박세는 상관에 내도록 징세의 이분화를 정한 장강장정의 규정으로부터 알 수 있듯이, 양상민선에 대한 청조 중양 및 지방당국의 기준은 그렇게 명확하지 않았다. 양상민선은 외국깃발을 달고 있는 “양선”이면서 동시에 내지선조를 가진 “민선”으로, 깃발과 증명서의 조합에 따라 그것이 “양선”이 되기도 하고 “民船”이 되기도 하였다.

제4장에서는, 華商洋船章程의 성립 경위를 분석하고 華商洋船에 대한 청조정부의 관할이 어떻게 행해졌는가를 고찰했다. 청조정부가 화상양선의 관할에 본격적인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태평천국때문이었다. 청조 중앙은 태평천국이 양선, 특히 汽船을 손에 넣는 것을 우려하였고 이를 방지하는 것이 화상양선장정 마련의 중요한 목적이었다. 지방대관으로서는 새로이 등장한 화상양선이라는 명목을 어떻게 제도 속으로 편입시켜 탈세와 미등록 선박으로 인해 야기될 피해를 막을 것인가 하는 문제 역시 중요했다. 장정 논의 초기에는 외국영사에게 화상양선 관할 책임을 일부 전가하는 領事代辦論이 주류였으나, 영국당국의 반대로 인해 무산되었다. 청조정부는 중국 獨自의 장정 마련에 부심하였고 海關總稅務司 하트의 장정 외에 閩浙總督 左宗棠의 장정 7조, 上海通商大臣 李鴻章과 江海關을 중심으로 한 江海關稅務司 지켈의 장정 9조, 장정 18조가 제시되었다. 하트는 이들 장정을 수렴해서 수정장정을 만들었고, 이홍장은 이를 다시 첨삭해서 장정 6조를 마련했다. 그 결과 화상양선은 洋商洋船과 마찬가지로 조약관세의 적용을 받을 뿐만 아니라, 통상항을 왕래하며 해관의 관할 하에 놓이게 되었다. 화상양선장정의 성립과 시행에 따라 화상의 양선 소유가 공인됨과 동시에 그때까지 양상양선에게만 부여된 이른바 조약적 권리를 화상양선 역시 향유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청조정부의 목적은 결코 조약적 권리의 均霑에 있지 않았다. 청조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는 화상양선을 통상항에 묶어둔 것에 지나지 않았으며 그 주된 목적은 양선, 특히 기선의 내지로의 진출을 막음으로써 民船業을 보호하고 이금징수액을 확보하는 데 있었다.

제5장에서는, 長江六處章程의 성립 경위를 분석하고 長江六處의 지정에 따른, 이전과는 다른 통상 환경에서 청조 중앙과 지방이 어떻게 대응하였는가를, 어떻게 “양”과 “화”를 분별해서 관리·징세하였는가를 고찰하였다. 1860년대 초 장강장정에서는 징세대상을 “양”과 “화”로 구분할 명확한 규정이 없었고 이것이 이금 징수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는 문제의식이 청조 내부에서 공유되었으며 장강육처장정 작성 시 반영되었다. 청조 중앙과 지방당국은 통상항의 해관에서 징수해야 할 해관세와 非통상항인 육처의 이금징수소에서 징수해야 할 이금을 확보할 수 있도록 장정의 조문을 조정했다. “양”과 “화”를 구별해서 징세하기 위해서는 징세 대상인 양선과 민선

에 대한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였고 장강육처장정은 육처에서의 기선에 의한 직접적인 화물의 積荷를 금지하고 오로지 민선을 이용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육처는 내지의 비통상항으로서 기선, 즉 양선이 자유롭게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 견지되었고, 민선을 통해 기선의 화물에 대한 이금 징수도 가능해졌다. 또한 육처에서 육처까지, 육처에서 통상항까지, 통상항에서 육처까지의 경우, 해관세는 통상항의 해관에서 차등징수하고 이금은 육처의 이금징수소에서 중도이금과 일괄 징수하도록 하였다. 이리하여 장강육처의 지정에도 불구하고, 청조정부는 내항의 양선을 통상항에 제한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통상항과 육처를 구별해서 관리함과 동시에 해관세와 이금이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할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내항의 해관체제의 형성을 바탕으로, 제6장에서는 1870년대를 중심으로 장강교역의 구조를 분석하고 해관체제가 실제로 어떻게 운용되고 있었는가를 검토하였다. 19세기 후반 청조정부는 양선을 통상항에 묶어두는 정책을 통해 양상 및 양선에 의해 행해지는 통상에 대해 철저한 통제를 가함과 동시에 조약관세와 내지관세의 두 시스템 속에서 “양”과 “화”를 구별한 징세와 관리를 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양선이 중국의 통상항간을 왕래하며 洋貨 뿐만 아니라 土貨의 교역에도 참여할 수 있게 되면서 자연히 화상과 결탁, 혹은 협력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청말의 양선 정책, 즉 양선을 통상항에 묶어두는 정책은 주효하였으나 그와 함께 조약적 권리를 향유하는 화상이 늘어나고 있었다. 1870년대 장강교역의 구조를 분석하면, 양선에 의한 교역에서 중국 국내 통상항 간 移入·出이 적잖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그리고 “對外貿易”이라기보다 “對內貿易”이라고 해야 할 이 내항에서의 교역에서는 내지상인과 내지자본에 의한 영향이 증가하고 있었다. 또한 양선 가운데 장강교역의 대부분을 맡고 있던 內江輪船은 화상양선의 공인이라 점차 중국깃발에 의한 교역 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1870년대 말에는 영국깃발과 중국깃발의 2강체제로 재편되었다.

이와 같이, 양상 및 양선이 통상항 간 교역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장강 개방에 의해 내지교역과 직접적인 접점을 가지게 되면서 화상 및 민선이 양상민선과 화상양선과 같은 형태로 해관의 관할 영역에 들어왔다. 청말의

무역관리·징세체제는 “양”과 “화”, “대외”와 “대내”가 아닌 통상항과 비통상항을 나누는 시스템으로 구축되었으며, 청조정부에게 통상항체제(treaty port system)란 양상 및 양선에 의해 조약적 권리가 향유되는 시스템이라기보다 특히 양선을 중심으로 한 조약관세의 대상을 민선과 같은 내지관세의 대상과 구별해서 통제하는 시스템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清末 新政期(1907~1911) 吉林省의 旗制 개혁 연구

이지영(서울대)

본 논문은 중국의 마지막 帝國이었던 만주족의 청조가, 최후 5년간 자민족인 만주족(旗人)과 만주족의 정체성을 상징하는 八旗제도에 대해 단행했던 각종 개혁에 관해 연구한 글이다. 청조는 19세기 중반 이후 제국주의의 침략과 위협, 내부의 반란 등이 끊이지 않으면서 藩部와 조공국의 이탈이 가시화되는 등, 총체적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이에 대한 대응으로 부흥을 위한 다각적 개혁의 길을 모색하게 되고, 이것이 양무운동과 무술변법운동, 신축신정 등으로 표출되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1901년에 시작된 청조의 마지막 개혁운동인 신축신정(통상 ‘新政’이라 칭함)은 청조의 멸망과 함께 중단되었지만 교육과 군사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근대화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특히 1904년 러일전쟁에서 입헌국 일본이 러시아에 승리를 거두었다는 사실은 청조의 입헌을 부추기는 결과를 낳았다. 청조는 1906년 예비입헌을 선포하고 본격적으로 입헌을 위한 준비에 돌입하게 된다.

이 글은 바로 이 청말 입헌의 시기, 청조가 추진했던 ‘만한융화’와 팔기제도에 대한 개혁의 실상에 주목한 연구이다. 헌정의 실시가 당위가 되면서 만주족의 청조는 ‘滿漢간의 진역을 허물어 함께 國民을 만들 것’을 공표하고 팔기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러한 작업이 청조의 최후 5년간 신정의 주요 내용을 구성하였으며, 만주는 이러한 작업의 중심에 있었다. 만주는 청조의 발상지이자 京師 다음으로 旗人 인구가 많은 곳이었으며, 줄곧 내지 한인의 이주를 금지했던 封禁지역이었던 탓에, 이곳 만주에서 행해지는 팔기 관련 각종 개혁은 전국의 귀감이 된다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지녔으며, 만한진역 해소를 위한 청조의 노력을 가시적으로 보여줄 수 있었다. 이는 당시 혁명파가 부르짖었던 청조 타도의 외침을 누그

러뜨리고, 그들의 주요 불만이었던 만한간의 차별을 철폐하겠다는 점을 확실히 보여줄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다.

필자는 1907년의 建省改制를 통해 東三省으로 거듭난 만주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만주는 러일전쟁 이후 전후 재건사업을 포함하여 전면적인 제도 개혁 차원에서 新政을 추진하였다. 소위 ‘東北新政’이라 칭해지는 만주에서의 대대적 개혁은 1907년의 ‘建省改制’로 정점을 찍게 되는데, 이를 통해 기존 특별행정구역이었던 만주는 봉천성, 길림성, 흑룡강성의 3省 체제로 들어서게 된다. 내지와 마찬가지로 直省체제로 편입하게 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변강에서의 신정은 內地 各省에서 진행된 신정과 그 내용 면에서 차이를 보이지만, 만주의 경우는 이처럼 建省改制를 통해 기존의 駐防체제를 청산하고 내지와 같은 州縣체제로 이행해 가는 과정이 신정에 포함되어 진행되었다는 점에서 신정으로 인한 변화의 진폭이 다른 지역에 비해 큰 편이었다. 필자는 이 가운데, 지리적인 중간지점이자 지정학적 중심인 길림성을 분석 대상으로 하여, 이곳의 駐防과 八旗가 각종 旗制개혁의 과정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변모하였는지 4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우선 관제개혁이 길림에 가져온 변화를 알아보았다. 청조는 러일전쟁 이후 만주에 대한 제도 개혁을 시행하면서, 1907년에 이르러 260년 넘게 특별행정구역으로 있던 만주를 直省체제로 편입시켰다. 이는 기존의 八旗駐防을 폐지하고 내지와 동일한 州縣체제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였고, 그 결과 길림은 17개 駐防의 정돈과 이곳에 거주하고 있는 40만 기인에 대한 대책 마련에 고심하게 된다. 길림은 이러한 작업을 선도할 책임기구로 1908년 吉林全省旗務處를 설치하였으며, 기무처는 民官과의 직권 중첩으로 ‘虛設’이 되어버린 旗官과 旗署의 폐지를 가속화하였다. 즉 길림은 1910년에 이르러 각 駐防 長官의 폐지 작업을 마무리하게 된다. 이 경우 대부분 기존 駐防 아문의 자리에 旗務承辦處를 설치하여 協·佐 이하의 관원을 旗務承辦處提調로 임명한 후, 旗兵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여 해당 지역 旗戶가 州縣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생계 도모 문제 등을 처리하도록 하였으며, 기무승판처를 설치하지 않은 駐防의 경우에는 인근 州縣이 해당 주방 기인을 관할하도록 함으로써 駐防의 완전한 해체를 맞이하였다. 각 駐防아문이 폐지되면서 駐防 長官 및 이곳에 근무하던 筆帖式 등 이들 裁撤 관원

을 위한 다양한 출로가 모색되었는데, 여기에 적용되는 공통된 규정은 원래의 품에 맞추어 調用하되, 그 이전까지는 原俸을 계속 지급하며, 升階가 필요한 경우 升階처리한다는 것이었다.

팔기 병사들에 대해서는, 이들을 신군내로 편입시키려는 노력이 신정기 군사개혁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旗를 鎭으로 개편함으로써 신군편련과 동시에 기인생계 문제까지 해결하려 했던 발상에서 추진된 것이다. 이에 신군을 편성함에 있어 현지 토착인, 그 가운데서도 旗丁을 우선적으로 징발할 것을 강조하였다. 먼저 기존 팔기 병사를 대상으로 하여 일정 선발 기준을 통과하면 신군에 들어가 훈련을 받도록 하였는데, 문제는 모집 단계에서부터 정원을 채우는 일이 어려웠고 신군에 들어간다 하더라도 훈련을 견디지 못해 중도에 낙오하고 도망하는 등 대규모 缺額이 발생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강제 징집이 아닌 勸徵의 형태였다는 점, 그리고 팔기 兵餉이 중단되지 않은 채 계속 지급되고 있는 상황에서 신군의 급료가 높다고 할지라도 이들 旗兵이 군이 신군으로 들어가야 할 만한 충분한 동기부여가 되지 못했다는 점과 관련된다. 애초 旗를 鎭으로 개편하려는 시도에 대해, 이것이 다분히 편의적 발상으로서 國防의 차원에서는 불가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하였지만, 기인생계 문제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밖에 없었던 기무처는 다양한 개선책을 마련하여 팔기의 신군으로의 재편 노력을 끝까지 지지하였으며, 아울러 신식 군사학당에 팔기를 입학시켜 이들을 신군 장교로 양성함으로써 청조의 군권 장악에 이들 팔기를 든든한 버팀목으로 이용하고자 하였다.

40만 기인의 생계를 위해 길림이 가장 의지했던 것이 토지였다. 기제개혁을 단행하면서 시종 강조했던 부분이 기인을 토지에 정착시켜 스스로 자립을 도모하도록 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청조가 1907년 기인생계를 도모하라는 諭旨를 내렸을 때 計口受田을 통한 기인의 귀농을 지시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三姓 지역 정도를 제외하고는 길림에서도 기인에게 분급할 토지가 남아 있는 곳은 거의 없었으며, 이미 많은 旗地가 민인에 의해 점유되어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全省에 기인을 위한 계구수전을 실시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것으로 결론이 난다. 이에 방법을 전환한 것이, 旗地를 토대로 재원을 마련하여 기인생계 비용을 마련한다는 것이었다. 초기에는 地租 수입

증대를 위해 기지에 대한 淸丈과 升科에 집중하였으나, 선통2년 말부터는 기지를 매각하여 地價를 거두는 방안으로 선회하였다. 이는 巨款을 마련함으로써 기인생계를 비롯한 각종 신정 경비를 충당하기 위함이었다. 물론 이렇게 마련된 재원의 활용방안을 두고 旗署와 民署 간의 갈등이 빚어지기도 하였지만 이러한 갈등은 점차 융화되어 가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게 된다. 기지의 매각을 비롯한 旗民간의 토지 매매 역시 이러한 융화의 과정을 단축시키는 데 일조하였으며, 기지의 租賦 징수권까지 民署로 이관되면서 길림은 주현체제로의 안착을 가속화했다.

기인 자제에 대한 교육 역시 旗制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되었다. 학당이나 기술 교육을 통해 기인이 민인과의 격차를 줄여나가고 주현사회에 잘 적응하여 향후 자력으로 생계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길림 각 駐防에서는 지방의 각종 旗產을 활용해 경비를 마련함으로써 기인 학당을 설립하였다. 흥미로운 것은 입현을 추진하면서 만한 구분 폐지의 분위기가 한창이던 당시 만문과 몽문에 대한 교육 역시 강조되어 이를 전문적으로 수업하는 학당의 설립이 장려되었다는 것이다. 지역의 상황에 따라 만몽문학당이 건립되든지 일반 소학당이 건립되든지 하였으나, 각 학당의 공통점은 주로 蒙小學 위주의 교육을 진행하였다는 것인데, 중도에 학업을 포기하고 낙오하는 학생들이 대거 발생하기도 하였다. 학당 교육 외에 실업 교육도 이루어졌는데, 길림에서 이러한 실업 교육 및 이와 연계한 물품의 생산, 판매를 담당하였던 대표적 기업이 바로 길림기무처공장이었다. 길림기무처공장은 길림기무처가 직접 관할하는 관판기업으로서, 길림 관병의 隨缺地租가 기무처공장의 경비로 충당되었다. 길림 省을 대상으로 기인 자제들을 藝徒로 모집하여 기술을 가르치고 생산 작업에 투입하였으며, 이들을 시작으로 省旗에 기술을 전파함으로써 많은 기인들이 입현의 시기에 자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렇듯 만주는 1907년 민정체제로 이행하면서 팔기를 민인사회에 흡수하고자 다각도로 노력하였다. 특히 동삼성의 督撫들이 만주를 內地化하고 민정체제를 안정적으로 구축하면서 팔기를 민인사회에 흡수하고자 의지를 가지고 노력한 결과, 청조가 내세웠던 ‘만한차별의 철폐’가 만주에서 어느 정도 가시적인 성과를 보인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만주에서

기인들이 기존의 특권 또는 혜택을 전부 상실하게 된 것은 아니었다. 駐防의 장관 및 필첩식들만 裁撤되었을 뿐, ‘기무승판처’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대체된 채 駐防은 사실상 계속 존재하였다고 볼 수 있다. 協·佐 이하의 관원이 속하의 기병들을 계속 관할하였고, 旗餉은 계속 지급되었으며, 재절된 관원들은 모두 품에 맞추어 다른 곳으로 이직하거나 이직하기 전까지 原俸을 지급받았다.

광활한 기지를 보유하고 있음으로써 내지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유하고 있었던 만주의 기인들에게도 ‘주방 팔기의 폐지’는 내지 각 주방의 기인들과 마찬가지로 달가운 일이 아니었다. 다른 지역에서는 기인들의 반발과 개혁 의지가 결여되어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곳도 있었던 데 비해, 만주가 그나마 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물론 독무의 의지도 있었지만, 개혁의 과정에서 기인들이 현실적으로 커다란 희생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었기 때문이었다. 즉, 만주 기인들의 입장에서는 독무가 주도하는 旗制 변통의 과정은 자신의 공식 직책 또는 직무에서의 일정한 변화를 가져올 뿐, 국가로부터 아무런 보장을 받지 못하는 일반 민인과 동일한 존재로 전락하는 것은 아니었다.

실제로 길림성은 裁撤된 팔기 관원에게는 새로운 관제 시스템에서 필요로 하는 역할을 찾아주려 노력하였고, 기병에게는 우선적으로 신군이나 경찰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부여하였으며, 일반 기인들을 위해서는 토지를 분급하거나 토지를 이용하여 얻은 자금을 통해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아울러 기인 자제를 교육하기 위한 학당이나 공장 설립에도 적극적이었다.

청말 신정 시기에 추구했던 ‘만한 구분 철폐’의 정책은 청조에서 의도했던 의도하지 않았든 간에, 근본적으로는 동질적인 ‘국민’을 만들어냄으로써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변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만주족과 한족의 구분 또는 차별을 폐지한다는 것은 민족적으로 동화시킨다는 의미가 아니라, 국가의 구성원으로서 갖는 권리와 의무에서의 차이를 제거한다는 의미였기 때문이다. 당시 청조에서 추진하고 있었던 입헌의 맥락에서 보아도, 만주족은 더이상 국가권력의 특별한 보호와 지원을 받는 존재가 아니었다. 1908년에 반포된 <欽定憲法大綱>에서는 ‘臣民’이라는 개념 아래 민족적 구분이

설정되지 않았다.

그러나 청조는 결과적으로 滿漢의 구분을 없애는 데 실패하였다. 주방팔기의 해체와 민정체제로의 이양을 위한 여러 개혁 조치에도 불구하고, 청조는 '기인의 특권 포기'가 아닌, '기인의 생계 도모'에 치중함으로써 기존 기인들의 기득권을 최대한 보호하는 데 유의하였기 때문이다. 旗餉의 지급이 끝내 중단되지 않았다는 것이 가장 단적인 사례이다. 旗餉의 지급은 민국 초기에도 이어졌고, 1924년에 이르러서야 북경에서 旗餉 지급이 정지되고 만주족 황실에 대한 지원도 중지됨으로써 팔기제도가 해체되었다. 특히, 길림성 정부는 1929년에 이르러서야 旗餉 지급의 중단을 선포하였다. 기인들에 대한 국가의 특별 관리는 '滿漢 차별의 폐지'를 통한 균질적인 '국민'의 창출을 저해하는 것이었다.

아울러, 청조에서 기인의 한인사회 적응을 위하여 추진한 여러 정책들이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시간과 재원이 너무 부족했다는 점에 대해서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 만주의 산업은 이제 막 발걸음을 뚝 시점이라 그로부터 새로운 이윤 창출을 기대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길림성에서 그나마 의지할 수 있는 것이 토지였다. 기인들의 생계 문제 해결에서 전국적으로 만주가 가장 성과를 거둔 곳으로 평가되는 것도 이러한 토지 자산에 기인하는 바가 컸다. 그러나 논문에서 살펴보았듯이, 길림성에서도 토지 분배를 통한 귀농의 방식에는 한계가 있었으며, 토지 자산을 활용한 기인생계 지원 정도에서만 약간의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이러한 재정적인 압박 속에서도 길림에서는 한정된 토지 자산을 기반으로 '滿漢 차별의 폐지'를 위한 제반 조건을 갖추어나가는 데 있어서 나름대로는 일정한 성과를 올릴 수 있었다. 비록 큰 성공을 거둔 것은 아니었지만, 육군의 신군 편제 계획에 맞추어 鎭을 구성하고 旗兵을 흡수하였으며, 각종 학당과 공장을 건설하여 기인을 교육하기 위한 인프라도 구축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시스템이 성과를 드러내기까지의 시간이 턱없이 부족했다. 260년간 '앉아서 口糧을 소모'하던 기인들이 그들의 기존 관성을 벗어던지고 새로운 체제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했을 것이다. 청조가 이 시기 줄곧 내세웠던 것이 '만한 융화'를 통해 '국민'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지

만, 20세기 초의 긴박한 정세에서 ‘국민’의 창출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는 확보될 수 없었다.

티무르朝의 史書, 야즈디 撰, 『승전기』(Zafar-nāma)의 譯註

이주연(서울대)

본 논문은 유목민 정복자로 유명한 아미르 티무르의 일생에 걸친 勝戰 과정을 기록한, 傳記적 성격이 강한 페르시아어 역사서, Zafar-nāma를 譯註한 논문이다. 한국에서 티무르조 사 연구 성과가 아직 많지 않은 시점에서, 우선은 기본적인 사료부터 번역하여 향후의 연구에 밑바탕으로 삼는 것이 어떨까 하는 생각으로, 박사논문으로는 다소 드문 편이지만 사료를 역주하게 되었다.

본 논문은 약 80여 페이지의 해제와 본문번역, 그리고 50장 남짓의 부록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제는 4개의 장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1장과 2장에서는 각각 사서의 주인공인 티무르와 저자인 샤라프 알리 앓 딘 야즈디에 관해 소개하고, 3장에서는 이 사서를 번역하게 된 이유라 할 수 있는 사료적 가치, 4장에서는 이 사서의 다양한 사본과 본 역주과정에서 이용한 사본 및 출판본, 기왕의 번역본에 대해 소개하였다.

14세기 후반에 현 우즈베키스탄의 도시 샤흐리사브즈에서 태어나 동쪽으로는 중국의 영토인 현재의 신강, 서쪽으로는 터키의 이즈미르와 지중해의 東岸까지, 북쪽으로는 모스크바와 키예프, 남쪽으로는 인도의 델리에 이르기까지, 70여년의 생애 동안 이처럼 많은 넓은 영토를 차지하였던 아미르 티무르에 관하여 알려진 바는 많지 않다. 연구자의 입장에서 티무르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이나 통념 중에 가장 안타까웠던 것은, 티무르가 몽골제국의 칭기스 칸의 아류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점이다. 몽골리아 초원에서 시작하여 북중국, 중앙아시아를 점령하고 이란의 북부와 카스피해 서안을 돌아 러시아와 동유럽의 문턱까지 다다랐던 칭기스 칸이지만, 잘 알려진 몽골제국의 최대 강역은 그 이후 칭기스 칸의 후예들에 의해 점령되었다. 북중국은 그의 아들 우구데이, 남중국을 손자인 쿠빌라이가 정복하였으며, 러시아는

그의 아들 조치와 그 후예들이, 이란은 또 다른 손자인 훌레구가 점령한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각기 자신이 점령한 곳에 자리하여 대칸 울루스에 예속된 하위 울루스를 칭하였지만, 실제로는 거의 완전한 자치를 누렸고, 조치 울루스나 차가다이 울루스의 경우 대칸 울루스와 오랫동안 반목하기도 하였다. 칭기스 칸은 이제껏 독립적인 권역으로 여겨지고 있었던 여러 지역을 한 사람의 손으로 점령하는 전무후무한 공적을 거둔 군주이지만, 이슬람권에서는 티무르의 파급력이 더욱 크고 악명 또한 높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티무르는 단순히 몽골제국의 전철을 밟아 이미 한 차례 통일된 적이 있던 넓은 영토를 어려움 없이 차지하였다가, 1代만에 사라진 아류로 여겨지고 있는 것이다.

물론 티무르가 차지한 영역이 몽골제국의 최대 강역과 비교해보았을 때, 북인도와 지중해 東岸을 제외하고는 거의 겹치는 것이 사실이다. 반면에 티무르는 몽골리아 초원과 중국을 차지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영토의 크기만 보았을 때 티무르조는 몽골제국에 비해 최대 강역이 작다. 또한 칭기스 칸의 후예들은 칭기스 칸이 차지한 영토를 바탕으로 주변 지역을 침공하여 영역을 확대하였기 때문에 최대 강역은 칭기스 칸 사후 수십 년이 지난 뒤에 형성되었지만, 티무르의 최대 강역은 티무르가 사망한 그 시점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티무르가 몽골제국이 쇠퇴하여 주인 없이 버려진 옛 몽골제국의 강역을 쉽게 차지하였고, 그가 사망한 후에는 제국이 다시 옛날처럼 무주공산으로 사라졌다는 인식이 생겨났던 것이다.

그러나 필자는 본고의 작업을 통해 이와 같은 통념이 다소간 해소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선 티무르의 정복사업이 칭기스 칸의 전철을 따라 무주공산을 재탈환한 것이라는 인식은 『승전기』속에 기록된 수많은 원정 과정을 통해 부정되는데, 이를 해제의 1장 1절에서 간략히 정리하였다. 몽골제국은 13세기 후반에 최대의 강역을 자랑하였으나, 이미 그 전에도 여러 칸국이 갈등을 빚고 熱戰까지 발발하였으며, 때로는 맘룩조나 유럽 등 외부 세력을 끌어들이 형제의 국가인 다른 칸국을 공격하려는 움직임이 있었다. 이러한 갈등은 14세기 몽골제국의 대화약에 의해 잠시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으나, 언젠든 터질지도 모르는 화약고와 같아서, 대칸 울루스의 영향력이 약화되면서 칸국 간의 갈등은 다시금 수면위로 떠올랐다. 게다가 칸

국 내의 지방세력 역시 남아있는 상태였는데, 예를 들면 이란의 경우 마잔다란의 사이드 세력이나 헤라트의 케르트 조, 이란 중남부의 살구르 조 등은 일칸국이 멸망하고 4개의 세력(잘라이르, 무자파르, 인주, 추판)이 생겨나기 이전부터, 아니 몽골제국이 이란에 들어서기 이전부터 존재하던 지방 세력이었다. 사실상 몽골제국은 이러한 지방 세력의 지방 지배를 용인한 상태에서 초지역적 세력으로 들어선 제국이었으므로, 몽골제국이 쇠퇴한 후에 다시 몽골제국의 옛 강역을 통일하기 위해서는 이 중하위 지방 세력들을 각개 격파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승전기』에서는 이러한 과정을 비교적 상세히 기록하고 있다.

해제의 1장 2절에서는 티무르만의 특징을 또 하나 제시하였다. 티무르의 강역이 대체로 이슬람권을 아우르며, 티무르 역시 부친의 대에 이미 무슬림이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이슬람은 아랍 이슬람이지만, 티무르의 수도인 우즈베키스탄의 사마르칸트는 페르시아어가 文語였던 페르시아-이슬람권에 해당한다. 그의 조상이 이곳에서 적어도 14세기 초반부터 뿌리를 내렸던 티무르는, 이슬람 뿐 아니라 페르시아 문화에도 거부감이 없었으며, 오히려 페르시아의 전통 문화를 이용하여 자신의 군주적 정통성을 내세웠는데, 그것은 『승전기』본문에서 티무르를 가리키는 칭호, ‘사힉키란’이다.

티무르가 자신의 군주적 정통성을 내세우기 위해 사용하였던 두 가지 상반되는 장치는 1) 몽골제국의 사위(부마)라는 것과, 2) 이슬람의 군주라는 점이다. 그런데 최근 몇몇 학자들은 세 번째 장치에 대해 언급하기 시작하였는데, 이는 3) 세계정복자, ‘사힉키란’이다. 이 관념은 이슬람 이전의 페르시아 문화에서 기원하였으며, 페르시아 문화권의 이슬람화 이후에 이슬람 문화로 편입되어 페르시아어 문학작품 속에서 세계를 정복하는 영웅 캐릭터로 자리 잡았다가, 13세기부터 칼리프의 허락을 받지 않고 등극한, 무력을 자랑하는 실존 군주의 칭호가 되었다. 이 칭호가 지니는 이미지는 적에게는 용맹하지만 피지배민들에게는 정의롭고 관대하며, 그의 세계정복은 이슬람의 확산과 전파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 칭호는 티무르 이전에도 몇몇 무력 군주들, 셀죽조나 맘룩조, 일칸국의 몽케칸 등에게도 붙여졌으나 결국 티무르의 전용 호칭으로 고정되었는데, 이러한 현상에 가장 큰 공헌을 한 것이 바로 이 『승전기』이다. 이 『승전

기』는 티무르조의 첫 사서는 아니지만, 이전 사서 및 여러 자료를 바탕으로 증보한 것인데, 이 증보 과정에서 다른 정보들도 많이 수록되고 잘못된 기록이 수정된 부분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티무르의 ‘사힙키란’으로서의 정통성이 부각되었다는 점이다.

2장에서는 티무르의 정통성 확보에 큰 기여를 한 『승전기』를 서술한 저자, 야즈디의 생애와 함께, 그가 티무르의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살펴보았다. 우선 1절에서는 야즈디의 생애에 대해 서술하였는데, 특히 그가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학자들과 교류를 하였는지, 그의 학문적 배경이 어떠한지를 중심으로 서술하였다. 그는 티무르조 시기를 전후한 14-5세기 경, 수피즘처럼 신비주의적 교리에 완전히 심취되지는 않았으나 신비주의적 특징을 지닌 학문, 예를 들면 수비학이나, 점성학, 마방진과 같이 당대의 자연과학의 최첨단에 있으나 여전히 약간의 신비주의적 성향도 가지고 있는 학문을 연구하는 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다. 이 학문들은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나, 규범을 중시하는 원리주의적 무슬림에게는 다소 미신적이고 이단적이라는 느낌을 갖게 하지만, 14-5세기 사람들, 특히 이와 같은 학문이 예부터 고도로 발전되어 있었던 페르시아 지식인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가치가 충분한 학문의 범주에 속하였다.

2절에서는 야즈디의 이와 같은 지식이 실제로 어떻게 티무르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는지 살펴보았다. 우선 야즈디는 티무르의 정복과정 중에 주요 사건이 있을 때 마다, 연대표시명(Tārikh)이라 하는 기법을 이용하여 연도를 제시하였다. 그런데 이렇게 제시된 연도 중에는 티무르의 즉위식을 히즈라력 771년이라 명시한 부분은 타 사서에서는 볼 수 없는 내용이다. 더욱이 그가 즉위한 날짜를 태양력으로 그가 태어난 지 34년 되던 날로 못 박았는데, 이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숫자이다. 야즈디는 이 ‘771’이라는 숫자에 쿠란이나 하디스를 동원하여 신성한 의미를 부여하였으며, 그가 34년째 되던 날을 즉위식의 날로 잡은 것은 티무르 이전의 유명한 사힙키란, 알렉산더 대왕과 예수의 33년 생애를 넘어서는 날이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처럼 숫자에 중요한 의미를 부여하는 수비학에 능하였던 야즈디는 타 사서에서는 볼 수 없었던 설명을 덧붙여 티무르의 정통성을 확립하였는데, 이것이 당대나 후대의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사람들에게는 시쳇말로 크게 ‘먹히는’이

론이었다.

한편 ‘사힙키란’이란 용어는 본래 목성과 토성이 만나는 날에 태어난 영웅을 가리키는 것이므로, 『승전기』에는 점성학적 내용이 솔하게 등장한다. 물론 티무르의 실제 탄생일에 목성과 토성은 만나지 않았지만, 토성은 티무르가 탄생한 시점에 천구의 가장 위를 비추었다. 그래서 그는 토성의 주인이라고도 칭해졌는데, 그렇기에 티무르가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가장 강력한 세력을 가질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 외에도 주요 행성간의 합일이 일어나던 날에 티무르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는데, 이는 천구의 현상이 티무르의 勝戰을 나타내고 있음을 은연중에 강조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술하였듯이 ‘사힙키란’에게는 정의로움이 신앙보다 더욱 중요한 덕목이었다. 군주는 이교도여도 상관없지만 정의롭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 당대 무슬림 피지배자들에게는 만연한 인식이었다. 그리하여 일찍이 이란 카즈빈의 토착 지배자들은 몽케 칸에게 몽골인 지배자를 파견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하였는데, 그들이 몽골제국의 군대에게 바랐던 바는 알라무트의 5대 이맘파, 이스마일리를 일망타진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인식에 맞게 야즈디는 티무르의 정의로움을 강조하였는데, 이러한 기록이 당대의 현실과는 다소 거리가 있을 수 있지만 군주의 정통성을 강조하는 데에는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한 면모였다. 이러한 역사서 속 티무르의 이미지는 훗날 사파비, 무굴, 오스만, 샤이바니, 두라니 조 등의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여러 군주들에게 典範이 되어 많은 군주들이 제 2의 사힙키란을 표방하기도 하였는데, 이들의 인식 속 티무르의 모습은 곧 야즈디의 『승전기』 속에 묘사된 티무르였다. 본 사서는 티무르조 멸망 이후 수백 년 간 페르시아-이슬람권의 여러 후속국가에서 올바른 군주상을 정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던 것이다.

3장에서는 『승전기』의 사료적 가치에 집중하였다. 2장에서 내용만 보면 야즈디는 티무르의 정통성을 주장하기 위해 간혹 없는 사실을 지어내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물론 몇몇 사례에서는 그러한 정황이 있기는 하였으나, 대부분의 경우 본 사서는 지극히 상세하고 사실적인 편이다. 특히 동시대의 타 사료에 비해 내용이 상세하고,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은 사례도

종종 보인다. 이는 본 사서의 편찬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인데, 페르시아-이슬람권에는 오랜 書記(Dabir) 전통이 있었고, 거기에 몽골제국 치하에서 오랫동안 書記(Bakhsh) 역할을 맡아왔던 위구르인들이 티무르의 곁에 포진하고 있어 매일의 상황을 항상 기록하였다. 이러한 기록을 모아 비정기적으로 당대의 역사를 기록한 사서들이 티무르 재위 당시에도 수차례 저술되었는데, 이러한 다양한 자료를 모으고 서로 비교대조, 보충과 수정을 거쳐 새로이 증보한 사서가 야즈디의 『승전기』이다. 본 사서는 기존의 사서를 문체만 화려하게 바꾼 것이라는 비판을 받아왔지만, 개별적인 사건을 가지고 비교해볼 때에는 내용의 상세함과 정확도가 훨씬 증가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4장에서는 본 사서의 수많은 사본들, 그리고 기왕의 연구에 대해 살펴보았다. 본 사서는 1420년대에 완성되었고, 현존하는 最古의 사본이 1436-7년에 완성된 것인데, 그 이후로도 무수히 많은 필사작업이 이루어졌고, 사본이 발견된 곳도 매우 광범위하다. 현존하는 사본에 대해서는 본문에 수록하기 어려워 부록으로 남겨두었는데, 필자의 역량이 닿는 범위 내에서 온·오프라인의 카탈로그를 통해 찾은 현존 사본만 해도 200여개에 달한다. 그러나 개인 소장이라던가, 혹은 서고 속에서 카탈로그화되지 않은 사본, 또는 소장처에서 외부에 존재를 드러내지 않는 사본 등까지 더하면 훨씬 많은 수의 현존 사본이 존재할 것이라 생각한다. 그 중에는 1437년에 작성된 현존 最古의 사본 중의 하나도 포함되어 있다. 과거에는 이 사본이 외부에 소개되어 있으나, 현재 이란의 어떤 박물관에도 이 사본으로 추정되는 사본을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본 사서는 原語인 페르시아어 출판본이 4개, 전근대에 이루어진 투르크어 번역본이 3개이며, 18세기 초부터 유럽어로 번역이 이루어졌다. 1722년의 프랑스어 번역본과 1723년 영어 번역본이 그것인데, 문제는 이 번역본이 원문을 완전히 번역한 것은 아니다. 비교적 번역내용이 상세한 편이며 일부 역주작업도 되어 있지만 일부 생략된 부분이 존재하는데, 그 생략된 내용 중에 많은 부분이 화려한 문제로 장식된 부분이나, 페르시아 문학의 정수인 詩句, 혹은 전술한 수비학과 점성학적인 내용들이다. 이는 당시에 간결하게 사실을 제시하는 역사서를 중시하였던 사학 연구 상의 경향으로

인한 결과였으나, 현재의 연구자들은 이 내용에도 당대의 현실을 반영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며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그 이후로 본 사서는 2008년에 인도에서의 영어 번역본과 우즈베키스탄에서의 러시아어 번역본이 출간되었으나 둘 다 완역본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러므로 본 譯註는 페르시아어 사서인 *Zafar-nāma*를 타국어로 최초로 완역한 작업인 셈이다. 또한 본문의 내용에 이해를 돕기 위해 3000여개의 각주를 달아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원서의 본문은 본래 300여개의 작은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역자는 이 부분을 크게 도입부와 3개의 장으로 나누어, 전문의 내용을 체계화하고자 하였다. 도입부는 티무르의 탄생에 관한 내용이며, 대부분의 번역본에는 빠져있는 부분이다. 1장 1절은 티무르가 자신의 근거지인 마와라안나흐르, 현재의 우즈베키스탄과 카자흐스탄 남부에 해당하는 아무다리야-시르다리야 사이의 지역을 통일하는 과정에 해당하며, 2절은 티무르가 1년 미만의 단기 원정을 통해 주변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에 해당한다. 2장은 이란 3년 원정을 시작으로 보다 먼 곳으로 장기원정을 떠났던 1386-1399년까지의 기록을 포괄하며, 3장은 티무르의 마지막 원정이자 유럽-중국과도 접촉하였던 이란 7년 원정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본문의 내용이 다소 많은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어 특정 내용을 확인에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부록 2절에는 300여개의 이야기의 목차를 별도로 정리하였고, 연대표를 간략히 정리하였다. 한편 페르시아어 원문을 확인하고자 하는 연구자를 위해서 가장 최근의 페르시아어 출판본, 이란에서 2007년에 출판된 출판본의 페이지를 기록하였다.

이제껏 譯書가 박사논문이 되었던 사례는 많지 않았다. 그러나 티무르조사 연구는 국내에서도 많이 진척된 분야가 아니기에, 기본적인 사료부터 소개하는 것 역시 학자로서 첫발을 내딛는 데에 좋은 방법이라 생각하였다. 또한 본 사서는 문학작품으로도 보기에 손색없을 만큼 유려한 문체와 풍부한 페르시아-이슬람 문화적 요소를 담고 있어, 페르시아어 문학작품이 거의 소개된 적이 없는 국내에서 번역하기에 좋은 대상이라 생각하였다. 필자는 본 박사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역사적 궁금증을 갖게 되었고, 이를 하나하나 후속 연구를 통해 밝혀가고자 하였다. 한 가지 예로, 본 사

서는 티무르의 미완의 원정인 중국 원정에 관한 가장 충실한 기록을 담고 있는 페르시아어 사서이므로, 이를 중국·몽골 측의 기록과 비교하여 당시의 상황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 끝에 후속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으며, 이 주제는 서울대학교 인문대학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의 과제로 선발된 상태이다. 필자는 중국학 연구의 전통이 강한 동양사학과 출신으로, 중국 사료를 연구하는 것에 익숙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많은 동료들이 있어 이와 같이 동-서아시아를 포괄하는 연구 주제를 선택하게 되었다. 이러한 후속 연구 역시 譯書를 박사논문으로 제출하였기에 얻을 수 있는 결과라 생각한다.

THE MYTH OF THE BUTCHER AMIR: TRIBAL POLITICS AND EARLY MODERNIZATION IN NINETEENTH CENTURY CENTRAL ASIA

이광태 (Indiana University)

머리말: 연구배경

본 박사논문은 19세기 중앙아시아의 도시 부하라(Buxoro; Bukhārā)를 거점으로 한 망기트(Manghit) 朝의 군주 아미르 나스룰라(Amir Nasrullah; Amīr Naṣr Allāh)의 치세를 다루었다. 아미르 나스룰라는 19세기 초중엽의 중앙아시아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핵심적인 인물이다. 지금까지의 역사서술에 따르면 아미르 나스룰라는 전형적인 ‘동방의 폭군(Oriental Despot)’이었다. 그는 즉위 과정에서 잔혹하게 그의 형제들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즉위 후에는 인근 코칸드, 히바 칸국을 공격하였고 자신에게 반란을 일삼은 샤흐리사브즈 등의 주변 소국을 수십차례 공격하는 등 ‘피에 굶주린 폭군(Amīr-i Qaṣṣāb; the Butcher Amīr)’으로 묘사되어 있었다. 특히 1842년 영국령 인도에서 파견된 장교 아서 코놀리(Arthur Conolly)와 찰스 스토달트(Charles Stoddart)를 잔인하게 처형한 것으로도 악명이 높았다.

이러한 부정적인 평가에도 불구하고 아미르 나스룰라는 국내 정치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인근 국가에 승리를 거두어 1865년 이후 러시아 침공 직전 중앙아시아의 패권을 장악한 인물이었다. 필자는 그의 정치적인 업적에 흥미를 느껴 석사논문을 주로 그의 초기 정권 장악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석사논문 시 제기되었던 많은 문

제점에 대한 해답을 찾기에는 역부족이었다. 특히 ‘근대(Modernity)’와 ‘이슬람’의 문제는 보다 심층적이고 폭넓은 공부를 필요로 하는 것이었다. 이는 필자가 미국 유학을 결정한 근본적인 원인이었다.

미국 인디애나 대학에서 박사 과정을 지나면서 아미르 나스룰라 뿐 아니라 19세기 중앙아시아 역사에 깊은 ‘담론’(discourse)가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기존의 역사 기술이 갖는 문제점이 이른바 오리엔탈리즘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여기서 오리엔탈리즘은 중층적인 구조로 작용하고 있었다. 먼저 영어권 연구의 경우, 이른바 ‘거대게임(the Great Game)’ 네러티브의 영향을 받아 중앙아시아를 러시아-영국 두 강대국이 벌이는 게임 판의 말 정도로 간주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중앙아시아인들은 타자화, 주변화되어 본인들의 역사의 들러리로 전락한다. 그보다 큰 문제는 이른바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이었다. 이른바 ‘문명화의 책무(Civilizing Mission)’와 유럽-아시아를 아우르는 자기 정체성 자각은 19세기 전반에 걸쳐 러시아 엘리트층의 문화에 각인되어 있었다. 러시아의 “아시아 지배=문명화=퇴보 상태로부터의 구원”의 공식에 따라 러시아 제국의 대아시아 정책 결정이 좌우되었고 그 역사적 정당화 또한 이루어졌다.

필자는 이러한 오리엔탈리즘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1) 중앙아시아 사료를 이용하고 (2) 중앙아시아의 역사발전을 유럽의 기준이 아닌, 고유의 역사적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이를 위해 다양한 사료를 찾기 위해 우즈베키스탄, 러시아, 영국, 터키 등의 도서관 및 문서고를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했다. 또한 오리엔탈리즘의 허구성을 지적하기 위해서는 아이젠슈타트(S. N. Eisenstadt)의 “다원적/복수의 근대”(multiple modernity)¹⁾ 및 푸코(Foucault)와 가오카르(Gaonkar)의 “현재 상태에 의문을 품는 태도(attitude of questioning the present)”²⁾

1) S. N. Eisenstadt, “Multiple Modernities in an Age of Globalization,” *The Canadian Journal of Sociology* 24, no.2 (Spring, 1999), pp. 283-95; S. N. Eisenstadt, *Comparative Civilizations and Multiple Modernities*, vol. 2 (Leiden: Brill, 2003), pp. 535-60.

2) Michel Foucault, “What Is Enlightenment?,” *Ethics: Subjectivity and Truth*, vol.1 of *Essential Works of Foucault 1954-1984*, ed. Paul Rabinow (New York: New Press, 1997), 303-20; Michel Foucault, “The Art of Telling the Truth,”

이라는 개념에 근거하여 19세기 ‘근대성’라는 것을 새롭게 정의하고자 했다. 즉, ‘근대성’이라는 것이 지금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역사적으로 변천한 것인 만큼 19세기 초와 후반의 ‘근대성’이 같을 수 없다. 또한 지역적으로도 다르고 다양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19세기 초중엽의 부하라 사회를 전근대적으로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박사논문은 1장 연구사 정리, 2장 19세기 중앙아시아 사회의 내적 조건으로서 ‘부족’의 중요성, 3장 아미르 나스룰라의 대외 정책, 4장 아미르 나스룰라의 국가행정과 개혁, 5장 아미르 나스룰라의 종교적 정당화 추구 과정을 살펴보았다. 아래에서는 각 장별로 주요 내용과 논지를 소개하고 그 의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장: 연구사 정리 및 소비에트의 ‘동방 폭군’ 담론

박사논문 1장은 1절에서 러시아 제국 시기 동방학의 특징과 러시아 오리엔탈리즘 전반을 검토했다. 그리고 2절과 3절에서 소비에트 시기 중앙아시아 역사서술의 특징을 분석했다. 1865년 경부터 중앙아시아를 단계적으로 점령한 러시아 제국은 코칸드 칸국을 병합하고 부하라, 히바 칸국을 보호국으로 만들었다. 러시아 제국의 중앙아시아 식민 통치 과정에서 군 및 관료 출신 학자들에 의해서는 식민통치의 정당화의 차원에서, 또 다른 한편으로 러시아 제국의 개혁을 요구하는 지식인들에 의해서는 개혁이 필요한 사회악으로서 중앙아시아 사회는 ‘후진적’인 것으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학문적 전통을 이어받아 소비에트 학자들도 19세기 중앙아시아 정치 체제를 ‘봉건적’으로 규정했다. 소비에트의 중앙아시아 묘사는 단계적 을 강화되었다. 먼저 1917년 볼셰비키 혁명 직후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근대론자들이었던 일명 자디드(jadids)들은 그들의 개혁에 저항한 舊 체제로 중앙아시아 칸국들을 비판했다. 1924년 이후 중앙아시아 민족 分界와 함께 각 소비에트 공화국들의 역사서술은 대체적으로 자디드들의 주장을 따르면서도 각 민족의 역사적 주체성을 강조하는 경향도 발전하기 시작했다.

Critique and Power: Recasting the Foucault/Habermas Debate, ed. Michael Kelly (Cambridge, Mass.: MIT Press, 1994), 134-48; Dilip Parameshwar Gaonkar, ed., *Alternative Modernities* (Duke University Press, 2001), 13.

1939년 2차 세계대전의 발발과 함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이른바 러시아의 ‘큰 형님(Big Brother)’으로서의 역사적 평가가 정립되면서,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에 저항한 19세기 중앙아시아 칸국들의 부정적인 이미지가 강조되었다. 1951년에는 이른바 브라긴스키(Braginskii) ‘공식(formula)’에 따라 일체의 중앙아시아의 과거는 부정적인 것으로 간주되었다.³⁾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중앙아시아 학자들이 19세기 역사발전이 있었다는 주장이 허용되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중앙아시아 진출을 미화하는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오히려 1960년대부터 19세기 중앙아시아 사회의 후진성을 지적하는 주요 사료들이 번역, 출간되는 사업을 통해 소비에트의 오리엔탈리즘은 확고하게 정착되었다. 흥미롭게도 1960년대 사회경제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19세기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사이 교역 폭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중앙아시아의 과거사에 대해 확고하게 자리잡은 소비에트 역사관은 1991년 중앙아시아 국가들의 독립 이후 역사서술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2장: 19세기 중앙아시아 사회를 규정한 “부족”

2장 1절에서는 18세기부터 19세기 중엽까지 중앙아시아 사회와 정치체제를 규정했던 “부족” 관념을 살펴보았다. 중앙아시아는 16세기 초 무함마드 시바니 혹은 샤이바니 칸(Muhammad Shībānī/Shaybānī)이 이끄는 우즈베크 부족연합이 기존의 티무르 朝를 몰아내고 중앙아시아를 지배한 이후 다양한 부족 체계로 사회가 구성되어 있었다. 이러한 부족 체계는 몽골제국 이후 중앙아시아 초원 사회의 결과였는데, 특히 칭기스칸의 후예(Chinggisid)를 정점으로 구축한 정치체제는 이러한 부족 체계가 지탱될 수 있는 이유였다. 18세기부터 칭기스칸의 후예들의 정치적 권위가 약화되기 시작했고, 특히 페르시아의 정복자 나디르 샤(Nādir Shāh)의 중앙아시아 정복은 칭기스칸 후예들이 기존에 누렸던 정치적 권위의 추락과 새로운 부족 지도자들의 부상을 가져왔다. 그 결과 부하라와 카르시(Qarshī)에는 망기트(Manghit), 코칸드의 밍(Ming), 히바의 콩기라트(Qongirat), 샤흐리사브즈의 케네개스(Kenegäs), 발흐-바닥산의 카타간(Qataghan) 등 다양한 부족

3) I. S. Braginskii, S. Radzhabov, and V. A. Romodin, “K voprosu o znachenii prisoedineniia Srednei Azii k Rosii,” *Voprosy Istorii* 8 (1953), pp. 21-40.

지도자들의 국가가 성립하게 되었다. 이들은 합종연횡을 통해 자신들의 정치 이익을 극대화시켜려 했다.

그런데 최근 미국에서 데이비드 스니스(David Sneath) 등의 학자들이 이러한 ‘부족’ 개념이 사실은 허구이며 중국, 러시아, 그리고 서구의 식민통치를 위해 설정된 것이라는 주장이 유행하고 있다.⁴⁾ 필자는 이러한 스니스의 주장을 비판하고 최소 18-19세기 중앙아시아에서는 ‘부족’ 개념과 부족체제는 실재했을 뿐 아니라 당시 정치 제도와 관념에 깊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는 점을 역설했다. 즉 부족에 대한 이해 없이 18세기 중앙아시아 각지에 자리잡은 부족 왕조(Tribal dynasties)을 설명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배경은 19세기 부하라의 정치 상황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이었다. 2장 2절에서 밝힌 것처럼 1820년대 중앙아시아 정치 상황에 충격을 준 키타이-킵착 (Khitāy-Qipchāq) 부족연맹의 반란은 중앙아시아 정국에 파장을 불러왔다. 당시 부하라의 군주 아미르 하이다르(Amīr Haydar)는 자신의 아들들을 각 방면의 사령관으로 임명하여 이 위기를 극복하고자 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두각을 나타낸 것은 둘째 아들 아미르 나스룰라였다. 그는 특히 카르시(Qarshī) 지역에 있던 망기트 부족 군대를 규합하여 키타이-킵착, 코칸드 및 샤흐리사브즈의 연합군의 진격을 저지했다. 그 뿐 아니라 아미르 나스룰라는 부족 군대의 지지를 기반으로 궁극적으로 아미르 하이다르의 급사 이후 부하라 시의 정주집단의 지지를 받아 즉위한 그의 형제 아미르 후세인 및 아미르 우마르의 세력을 제압하고 왕좌에 오를 수 있었다.

3장: 아미르 나스룰라의 대외원정과 그 의의

3장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의 폭군 이미지를 구성한 대외원정에 관한 오해와 실체를 분석했다. 먼저 1절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가 수십차례 원정을 감행했다고 한 샤흐리사브즈의 케네개스 부족국가와의 전쟁을 살펴보았다.

4) David Sneath, *The Headless State: Aristocratic Orders, Kinship Society, and Misrepresentations of Nomadic Inner Asia*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2007).

아미르 나스룰라와 케네개스 부족국가의 갈등은 이미 수세기전 망기트-케네개스 연합체에서 그 연원을 찾을 수 있다. 원래는 같은 부족연합 소속으로 함께 생사고락을 같이 하던 두 부족 집단은 케네개스 측 지도자에 의해 망기트 부족이 축출되면서 라이벌로 변하게 되었다. 특히 18세기 초 칭기스칸의 후예인 아불페이즈(Abū al-Fayz) 칸 시기 당시 실권을 장악한 케네개스와 신흥 세력 망기트 사이 경쟁관계 속에서 아불페이즈(Abū al-Fayz) 칸을 지지하는 망기트의 지도자 무함마드 하킴(Muḥammad Ḥakīm)이 케네개스 중신들을 숙청하는 데 앞장섬으로써 이후 망기트 朝 창건에 기틀을 놓았다.

이러한 특수한 관계 속에서 아미르 나스룰라의 원정을 바라볼 필요가 있다. 아미르 나스룰라 시기 전까지 망기트는 케네개스의 臣屬을 조건으로 케네개스와 공존을 허용했었다. 그런데 아미르 나스룰라는 샤흐리사브즈의 케네개스 部의 해체를 추구했다. 결국 1856년 아미르 나스룰라는 항복한 샤흐리사브즈의 케네개스 군주였던 이스칸다르 비(Iskandar Bī)를 부하라로 옮기고 직접 지방관을 임명함으로써 오랜 숙원이던 샤흐리사브즈에 대한 직접 통치를 이룩할 수 있었다.

아미르 나스룰라의 또 다른 악명은 1842년 코칸드 원정과 연관이 깊었다. 2절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와 코칸드와의 관계를 다루었다. 1842년 이전까지 부하라와 코칸드는 중앙아시아 패권을 두고 경쟁하고 있었다. 특히 부족 집단이 주요 구성원이었던 만큼, 한 쪽 세력의 득세는 부족집단의 충성심 이동으로 이어져 다른 한 쪽의 몰락을 촉진할 수 있었다. 부하라의 망기트 군주들과 코칸드의 밉(Ming) 부족 출신 군주들은 이슬람 군주로서, 또한 유능한 부족 집단의 군주로서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경쟁했다. 그 경쟁의 결과 1842년 아미르 나스룰라는 전쟁을 승리로 이끌고 코칸드에 대한 부하라의 우위를 확고히 할 수 있었다.

3절에서는 부하라와 히바 및 아프간과의 관계를 다루었다. 흥미롭게도 부하라-히바 및 부하라-아프간과의 관계에는 러시아, 카자르(Qājār) 페르시아 및 영국령 인도가 변수로 작용했다. 러시아는 부하라와 무역 관계를 증진하고자 했으나 히바와는 노예 무역 등의 문제로 대결 관계에 있었다. 카자르 페르시아는 국경 약탈을 일삼는 투르크멘(Turkmen) 부족을 뒤에서

조종하는 히바를 적으로 간주했다. 또한 헤라트 (Herat)에 진출하고자 아프간에 지속적으로 원정을 감행했다. 영국 또한 아프간을 러시아 및 카자르(Qājār) 페르시아의 진출에 대항하는 완충지대로 삼고자 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미르 나스룰라는 각각의 집단에 협력할 수 있는 대상이었다.

한편 부하라는 히바 측의 반복적인 약탈 공격과 메르프(Merv) 지방의 투르크멘 부족 등의 문제로 히바 퉁기라트 朝와 갈등을 겪었고, 또한 아프간과는 카자르 페르시아의 시아파의 공격에 맞선 중앙아시아 순니(Sunni) 무슬림의 맹주로 라이벌 관계에 있었다. 아미르 나스룰라는 1843년 히바를 공격하여 부하라에 대한 국경 약탈을 멈추겠다는 약조를 얻었다. 이어 1845-6년 카자르(Qājār)의 투르크멘 원정에 있어 중재 역할을 통해 메르브(Merv) 지역 투르크멘 부족에 대한 종주권을 획득했다. 1855년 히바 칸의 사망 이후에는 히바 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이르렀다.

아미르 나스룰라는 아프간에 대해서도 1830년대 발흐(Balkh)의 통제권을 확보했고 1839년 영국령 인도의 공격을 받아 도피한 아프간 군주 도스트 무함마드(Dost Muḥammad)의 망명을 허용하는 등 우위를 확보했다. 그러나 영국령 인도 측에서 직접 지배가 아닌 간접 지배를 위해 도스트 무함마드의 재즉위를 허용한 1844-5년경부터 아프간의 공세에 의해 발흐를 빼앗기고 만다.

4장: 부하라의 행정체계와 개혁

4장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 시기 부하라의 행정체계와 군사 개혁에 대해 다루었다. 1절에서 살펴본 부하라의 행정체계의 특징은 유목사회의 전통에서 비롯된 코쉬베기/쿠쉬베기(Qoşhbegi/Qūshbegi)라는 직위였다. 특히 칸 스스로가 텐트 생활을 하던 유라시아 유목제국에서 칸의 近侍였던 매잡이(falconer)가 고위 관리로 인식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다. 매잡이든 아니면 칸의 오르두의 책임자이던 코쉬베기/쿠쉬베기는 18세기부터 부하라 행정체계에서 점차 중시되어 19세기에는 재상의 직위에까지 오르게 되었다. 아미르 나스룰라는 ‘부족’ 정치의 유산이었던 코쉬베기/쿠쉬베기 직위를 폐지했는데 이는 그간 ‘부족’ 정치를 극복하고자 했던 그의 노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다.

2절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의 행정 개혁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는 상비군 사르바즈(Sarbāz)의 도입을 살펴보았다. 사르바즈는 기존 16세기 이후 이른바 무슬림 ‘화약제국(Gunpowder Empire)’의 상비군과는 대비되었는데, 그 근원이 18세기 이후 유럽에서 유행한 군대를 모방한 오스만 朝와 카자르 페르시아의 新軍 (Nizām-i Jadīd)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었다. 부하라의 사르바즈는 유럽장교의 교육을 받은 페르시아 군대 출신의 지휘관들이 양성한 군대라는 측면에서 근대적인 군대 체제를 유지했다. 그러나 그 구성원이 대체로 러시아 및 페르시아 출신 노예였기 때문에, 사회 지도층을 구성한 부족 출신 귀족들을 대체한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미르 나스룰라 시기 중앙집권화가 상당히 진행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사르바즈 뿐 아니라 아미르 나스룰라는 기계식 시계와 같은 유럽의 문물을 받아들였다. 이는 19세기 중엽 부하라는 신문물이나 외국인재에 열려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5장: 부하라의 종교 제도와 아미르 나스룰라의 지배 정당화

5장에서는 아미르 나스룰라 시기 부하라의 종교 상황, 즉 이슬람의 사회적 의미를 다루었다. 부하라의 사법 체계는 이슬람 종교인들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특히 이슬람 신비주의라고 할 수 있는 수피즘(Ṣūfism)의 지도자 수피(Ṣūfi) 가문이 주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부하라에서는 낙쉬반디(Naqshbandī) 수피 지도자들이 종교지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18세기 초중엽 칭기스칸 후예들이 다스리던 우즈베크 칸국이 몰락하는 과정에서 인도로부터 역수입된 낙쉬반디 무자디디(Mujaddīdī) 수피 지도자들이 망기트 조에서 숭상되었다. 그러나 19세기 중반부터 무자디디 수피 지도자들 사이에서 다양한 현지화 경향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당시 각 수피 교파의 문헌에 따르면 같은 무자디디 그룹이라도 그 수피 선생의 가르침이 다양해지면서 서로 경쟁관계를 갖게 되었다.

아미르 나스룰라의 경우 그의 조부 샤 무라드(Shāh Murād)나 아미르 하이다르 (Amīr Ḥaydar)처럼 스스로 수피 지도자나 이슬람 종교학자를 자칭한 것은 아니었다. 대신 그는 예언자 무함마드의 후손을 뜻하는 사이드(Sayyid)라는 칭호와 함께 이슬람 종교법 샤리아(Sharī‘ah)의 실현에 따른

정의(ʿadl)를 강조했다. 이러한 샤리아의 강조는 호라즘(Khwārazm) 지방의 수피즘의 특징이었다. 한편으로는 샤리아를 강조함으로써 부족 요소가 강화된 부하라의 정치 현실을 개혁하는 한편, 중앙아시아 전체의 종교 지도자로서 스스로를 자리매김하려는 노력의 일환이었다고 할 수 있다.

맺음말: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의 시각에서 벗어난 19세기 중앙아시아 사회 결론에서는 위에서 살펴본 논의를 정리하여 다음과 같은 주장을 펼쳤다. 19세기 중앙아시아 사회는 기존 러시아 오리엔탈리즘에서 묘사한 것과 같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아니었다. 오히려 18세기 이래 정치문화를 좌우했던 ‘부족’ 정치의 대두에 대한 아미르 나스룰라의 대응 및 개혁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아미르 나스룰라는 대내외적으로 ‘부족’ 정치에서 비롯한 역사적 조건을 청산하고 새로운 정치 체제를 수립하고자 했다. 특히 아미르 나스룰라는 신식 군대나 기계식 시계와 같은 새로운 제도나 문물에 열려있었다. 그가 받아들인 이슬람이나 수피즘 역시 기존의 사상이나 관습을 답습하기보다는 호라즘이나 인도에서 발전된 방식을 받아들인 것이었다. 이러한 ‘현재를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새로운 것에 열린’ 부하라 사회는 앞서 새롭게 정의된 근대의 특징과 닮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